전체 직업계고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3학년 2학기 전환 학기 운영···취준·현장 실습 집중 부전공제로 진로 선택폭 확대···학기말 상담·설명회

내년부터는 전체 직업계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또 진로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부전공제도를 두 며, 졸업 직전인 3학년 2학기는 취업준비 및 현장 실습에 집중하는 전환학기제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 계 고등학교 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 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 정 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 등 일부 특성 화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 영했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마이스터고(51개교) 로 고교학점제를 확대했다.

내년에는 이를 전체 직업계고로, 오는 2025년에 는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 교육부 의 목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수업

광주대 '온라인 토크콘서트' 성료…김혁종 총장 깜짝 등장

량의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도록 교 육과정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1학점 수업량은 50분 기준으로 16회로 정하고, 고교 총 이수학점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에서는 최소 학업 성취 수준 을 설정하고,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학생에게 는 보충학습을 제공해 학습을 만회하도록 지원할

방학 중에는 대학처럼 계절 수업도 운영한다. 기 초학력 향상이나 첨단 기술교육 등 다양한 학습 경 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학기별 최소 이수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의 경우 지 역사회, 대학 등 학교 밖 교육도 학점으로 인정할

졸업 후를 준비해야 하는 3학년 2학기는 '전환 학기'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취업 준비, 현장 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매 학기 말 일주일 동안은 '진로 설계 집중 기간' 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변경을 위해 교육부는 이 기간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취업 상담, 과목 선택을 위한 교육과정 설명 회, 산업계 인사, 특강 등을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이와 함께 타 학과 부전공 등 다양한 과목 이수를 활성화하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현직 교사의 부전공 연수를 확대해 여러 교과를 지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한다. 소수교과 교사 의 장기 미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이 직접 임용 문항을 출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전문교과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산업 체 전문가는 산학겸임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 록 '교사양성 특별과정'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대학, 기업체 등 학교 밖 교육자원을 활 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기관 신청·승인 과정을 지원한다. 나아가 시·도교육청 공동실습소 를 유망산업 분야 실습지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목포대, 스마트야드 전문인력 양성한다

'조선업 생산 혁신' 산업부 사업 선정…카이스트 등과 컨소시엄

목포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11개 신규 사업 중 '스마트야드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최종

'스마트야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새로운 산 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춘 조 선산업 생산공정 혁신을 목적으로 DNA (Data· Network·AI) 기반의 스마트야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석·박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스마트야드란 연결화·자동화·지능화 기술이 융합된 통합생산시스템을 구축해 원가절감, 생 산과 품질 및 안전을 극대화한 조선소를 말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목포대는 중소조선연구원 (RIMS), 카이스트, 부산대, 울산대, 창원대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게 되며, 이 달부터 오는 2026년 2월까지 5년간 약 10억 원

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를 통해 목포대는 스마트야드 분야 석·박사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산학 프로젝트 및 전문 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영하게 된다. /채희종 기자 chae@

동강대,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 구축 '착착'

전남대와 손잡고 광주·전남 전문대 원격교육 허브 역할

동강대학교(총장이민숙)가 광주·전남지역전 문대 원격교육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대학 원격 교육 지원센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강대는 최근 전남대 진리관 507호에서 열린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 컨설팅'에 참여 했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1월 동강대가 전남 대와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권역별 대학 원격교 육 지원센터'의 1차년도 사업점검 및 2차년도 사 업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에는 동강대 원격교육 지원센터 담당자를 비롯해 한국 교육학술정보원(KERIS), 전남대 실무자가 참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권역 내 참여대학의 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 관리 등을 지원하고 원격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권역별 비대면 수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동강대는 사업 선정 후 교내 도서관 5층에 스 튜디오 구축에 나섰고 지난달 17~25일 기독간호 대학, 동아보건대, 목포과학대, 전남과학대, 전 남도립대, 순천제일대, 청암대, 한영대 등 참여 대학의 셀프 스튜디오 현장도 점검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욕설·폭언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라

전남교육청, 학교에 ARS·통화연결음 서비스 도입

전남교육청이 민원상담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민원인의 욕설·폭언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한 ARS를 청취한 뒤 착신 번호를 누르면 지정된 실로 연결되는 서비스이다.

과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도입했다. 자동응답시스템은 민원인이 각 학교에서 설정

통화연결음 서비스는 전화 연결 전 욕설・폭언 등 에 대한 녹취 안내, 민원인의 정서적 안정을 유도

하는 서비스로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통화 연결 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공했다. 매월 발생하는 요금은 학교 기본운영비로 충당된다.

김도진 전남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학교에 비대면 민원상담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며 "새 학기를 맞아 교직원 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대 '다독왕' 뽑는다 도서관 이용 증대·독서 생활화

호남대학교 학술정보원(원장 백란)이 재학생 들의 도서관 이용 증대와 독서 생활화를 위해 다 독왕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호남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12월 3일까지 9개월 여간 대출 횟수가 많은 이용자 상위 15명을 선정, 순위별로 문화상품권 을 차등 지급한다.

또 10권 이상 도서 대출자에게도 순위와 상관

없이 7Star 포인트를 별도 부여한다. 수상자 명 단은 행사 기간 종료 후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 /채희종 기자 chae@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010-2845-4754



광주대학교 '2021학년도 온라인 페스티벌 토크콘서트'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토크콘서트가 마무리될 무렵 김혁종(모니터 왼쪽 상단) 총장이 깜 짝 등장한 가운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학생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가져 눈길을 끌었다. 김혁종 총장은 코로나19 대응과 대면 수업 방안, 학교생활 꿀팁 등 학생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대동제 축제를 통해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